

2010년 4월 9일 (금) 계시 <순간을 낙심치 말라 (100108)> 나미리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중교회 중고등부 나미리라고 합니다.

2010년 1월 8일 금요성령집회 때 주님께 회개기도를 하며 기도를 뚫고 있던 중 주님께서 ‘너와 같은 단계에 있는 자들이 많다. 너가 한 계단 올라왔듯 그들에게도 말한다.’ 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의 신부들아, 이 역사를 뛰는데 포기치 말아라. 머뭇거리지도 말지며, 두려워하지도 말지며, 낙심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말지니라. 계단의 역사이지 않더냐. 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순간 어찌 노력 없이, 시험 없이 그냥 밟을 수 있겠느냐. 수준을 높이려면 그 만큼에 연단이 필요하다. 그 연단의 순간, 함정도 있겠고,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너희의 그 순간을 노리며 틈을 보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전진 하라.

2010년은 자신의 수준을 높인 자에게 해당된 역사. 2009년 지난 역사에 죽을 힘 다해 단계를 높이려 애쓴 자, 그런 자들이 담당하는 역사.

이 역사, 중한 역사이기에 사탄이 힐문치 못하게 시련 겪고, 뜻 알고 역사의 깊이 알아야 담당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탄 이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높이려는 그 순간, 어찌 시련 없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귀한 것을 얻기 전 그 시련의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

너희의 단계가 높아지기 전, 그 순간 난 너희를 잃을까 두렵노라. 시련을 이기기 위해 연단하는 것이건만 사탄은 틈을 타고 만다. 그 순간 시련이기에 어찌할 수 없이 사탄은 틈타고 만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야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기에. 그러니 알아라. 오직 너희를 낙심케 하며 무너트리고 좌절케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이다.

사랑, 생각, 마음, 은혜, 심정, 기도, 말씀, 찬양 이 모든 것의 단계를 한 계단, 한 계단 밟듯 올라올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노라.

앞에 놓인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 전, 그 수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만큼의 고통이 필요하니 그 고통의 순간 때에 사탄이 너를 가로채지 못 하게끔 너를 온전하게 만들라 함이다.

올라가려하면 고통 필요하고, 고통의 기간이 오면 흔들릴 터이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에 대해 온전히 알고 너 스스로 말씀에 온전해야 함이다.

늘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온전하라 함이다.

계단을 밟고 올라오기 전, 연단 없이 올라온다면 사탄은

역시나 힐문하고 마는구나. ‘어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에 올라 오냐고’ 힐문치 못하게 하기위해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가 시험을 주고 내가 잘 이겨나가길 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고통 없이 거듭난 역사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라.

고도를 높이기 전, 한계를 넘는 깨달음을 얻기 전, 포기치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사탄이 너를 가지려고, 너를 넘어뜨려 못 일어나게 하더라도 너는 말씀 앞에 서서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한 계단 밟고 올라오기 전, 그 순간이 바로 너와 사탄의 싸움이다.

그 순간이 6개월이건, 1년이건, 3년이건 지지 말아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으며 그 순간의 때마다 사탄을 이기며 올라와야 그 끝에는 오직 영광이 너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계를 넘는 그 순간이 너의 운명과 미래와 내 사랑과 내 뜻과 너를 향해 펼 내 역사가 좌우된다.

‘너에 대한 내 기대감이 커지느냐. 아님 난 또 다른 이를 찾아 볼 수밖에 없느냐’가 좌우 된다.

갑자기 잘 하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순탄하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때가 바로 너의 고도가 높아지려는 순간이다.

깊은 사랑받을 자격되는지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포기하면 이 빠른 역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은 포기하고 다시 일어날 시간이 없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순간순간 일으키고 또 일으켜라.

뒤로 물러나지도 선로를 이탈하지도 말아라. 너를 올리려는 그 순간에 나를 놓지 말아라. 희망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너를 다스려라.

너희의 스승이 그러했듯 내가 주는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크지 못한다. 고도를 높이지 못한다.

이 섭리길, 언제나 늘 똑같은 자리에서 올라오려 하지 않는 자도 있더구나.

아 어찌하나. 그들을 어찌해야 하나. 노력하는 마음도 없으니 어찌하랴.

내가 왜 낙심치 말라 하는 줄 아느냐. 끝까지 하는, 포기하지 않는 책임분담 있어야 내가 너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의 법이다.

너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 하더라도 사탄이 너의 마음을 잡고 건드릴지라도 나 예수가 그 순간조차도 그 지키고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고자 하는 마음, 행실을 가진 자들을 끌어올릴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어떤 순간과 상황이 와도, 내가 너의 옆에 있음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옆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 찰라에는 내가 잠시 나를 숨길 것이나 나를 잠시 숨길 뿐이다.

그 순간도 나는 너를 지키며 함께한다. 잠시 내가 너를, 너의 사랑과 깊이를 시험하는 것이 그것은 하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깊은 하늘 사랑 맛을 자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니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해보아라.

그래야만 이 2010년 역사,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야.

섭리 왔으면, 나의 신부가 되었으면, 크고자 하는 기질, 나 예수의 마음 합당히 모든 것 해내고 말리라는 큰 꿈, 큰 계획, 큰 행동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마음 이겨내어 더 큰 나를 맛보아라. 그렇게 고통 견디며 굳건해져 가는 이 길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굳건한 믿음가지고 너의 한계, 한계를 뛰어 넘어보자.

끝까지 하는 기질,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너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며 연단 받은 사랑 하자.

끝까지 하는 자야말로 예비된 길로 가게 된다. 자신을 향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어 다오.

이런 섭리 역사 너무 편안하여 심심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는 기막힌 섭리역사이지 않더냐. 힘들을 즐기며 낙심치 않는 굳건한 정신력을 가져다오.

순간을 이기고 한 계단을 올라 밝은 자에게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는 줄 아느냐. 그래. 더 깊고도 깊으며, 크고도 큰, 더 애뜻한 사랑 가득한 너에 대한 기대로 부푼 내가 있다.

사랑하는 자라면 더 큰 사랑을 바라고,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길 원하지 않느냐. 그것이다. 더 큰 사랑의 나, 더 커진 우리 사랑, 너에 대한 나의 희망.

넘는 자는 가진 노력 다하여 넘으려 하고, 넘지 않는 자는 노력 없이 고통의 연단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구나.

이러니 전진하고자 하는 자는 수준대로 사고대로 정신대로 너의 마음의 기질과 그릇대로 나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 추억도 심정도 더 깊어짐이지. 내 신부라는 자부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라.

올해 2010년은 이긴 자의 것, 이긴 자의 역사, 이긴 자만이 가지는 나 예수.

누가 자신을 사탄을 이기며 나를 가지는지 지켜보마.

한계 없는 나 예수가.

너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저 꽃송이로 표현하면 좋을까.

아, 꽃도 너의 아름다움을 담아 내지 못 하누나

그럼 저 태양으로 하면 좋을까.

아, 저 태양의 빛도 너의 빛만큼 아름답지 못 하누나.

그럼 향수로 너를 표현하면 좋을까.

아, 향수도 너의 향기 앞에 향을 잃고 마는구나.

너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그래, 너는 바로 나로구나.

바로, 나 예수구나.

너는 나로 밖에 표현할 수 없구나.

나를 닮아 그리도 아름답게 빛을 내며

나를 닮아 이리도 내 마음을 녹이는 향기를 뿜내며

나를 닮아 바다보다 너 넓은 마음을 가졌구나.

나를 닮아 이 지구를 품에 앉고 있는

너는 바로 내 여인이구나.

(이어서 1월 9일 철야 산기도 중 받은 시입니다.)

<시>

나의 여인아,